

Artist's Statement

태인

흙으로부터, 다시 흙으로

집안 곳곳엔 흙냄새가 스며 있었다.

가마에서 피어오르던 뜨거운 숨, 흙을 만지고, 불에 구워내는 거칠면서도 따스했던 과정들.

도자기로 채워진 풍경은 내 어린 시절을 조용히 감싸고 있다.

도자기는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특별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재와 함께 잊혀졌던 사물들이 묵은 시간을 털어내며 그저 사물이기를 넘어
내 그림 속에서 기억과 그리움으로 빛나고 숨을 쉬며 다시 이야기된다.

흙에서 나와, 물과 바람과 불을 만나 형상을 얻는 도자기를 그리며

삶속에 피투되어 살아가고 결국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는 우리 존재의 순환과 본질을 마주한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빚어낸 형태, 뜨거운 열을 견디며 생긴 균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끝내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과정.

그것은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

나의 작업은 개인의 서사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잃고 비워낸 자리, 그 자리에 스며드는 따스함을 담는 과정이다.

선명하면서 아련하고,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존재.

열은 유백색으로 투명하게 스며든 흙의 숨결 위에

푸른빛 안료의 붓을 들어 돌과 나무, 꽃을 그리고나면, 나비와 새들이 찾아와 하나뿐인 작은 풍경을 이루고

그 자연을 조용히 품어주는 항아리는 텅 비운 내면을 부드럽게 채워준다.

그리움과 사랑을 품은 시간의 도자기들이 안녕하길 바라며

전시를 보시는 분들께도 존재와 시간들을 되새기는 따뜻하고 조용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